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전남메타스쿨 온라인부트캠프' 성료

3일동안 방과후 매일 3시간씩 운영, 70명의 교원 참여

"전남메타스쿨 찾아가는 컨설팅" 양성 목적으로 운영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18일 전남 메타스쿨 온라인 부트(Boot)캠프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부트캠프는 마치 "신병훈련소"처럼 짧은 시간 고강도 훈련을 통해 "전남메타스쿨 플랫폼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교원의 전문성을 키워, 4월부터 실시되는 "전남메타스쿨 찾아가는 컨설팅"의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로 과정이 운영되었다. "전남메타스쿨 온라인 부트캠프"는 16일부터 3일동안 방과후 19시부터 22시까지 매일 3시간씩 운영되었으며, 70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온라인 수업 클래스 운영부터 With+, 미리캔버스, 알로 등의 에듀테크 도구, 프리즈라이브와 같은 수업자료 제작 방법까지 전남메타스쿨 서비스 전반을 내용

로 다루었다. 특히 이번 캠프의 마지막 시간에는 최근 전남메타스쿨(metaschool.jne.kr)에 연동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제프)을 이용해 가상 교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션을 수행하고 게임을 즐기며 부트캠프 과정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한 서로를 격려하고 이수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번 부트캠프에 참여한 교사 김OO(웅천초등학교)는 "3일간 참여하며 피곤하기 보다는 알찬 내용으로 많이 배웠고 열정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 현장에 빨리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교사 이OO(육암중학교)는 "아이

맨이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것처럼 이번 부트캠프에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 제 역량이 높아진 것 같다. 전남메타스쿨의 다양한 서비스를 잘 활용해보려고 한다. 특히 전남메타스쿨 온라인 클래스는 이전에 활용하던 외국의 플랫폼에서 아쉬웠던 화상서비스기능이 우수해서, 바로 활용해보겠다. 수업 중에도 좋지만 조종례 시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4월부터 운영되는 "전남메타스쿨 찾아가는 컨설팅"은 희망하는 학교 및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남메타스쿨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법, 연동 에듀테크 활용법에 대한 연수형 컨설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사 박OO(남약중학교)는 "전남메타스쿨의 With+를 활용한 수업자료 제작을 따라해 보니 매우 쉽고 꼭 필요한 퀴즈, 보드 등의 기능이 있어 수업적용에 용이할 것 같다. 학년초 필요한 안전관련 자료가 많고 현행화되어 있어 다음주 창의적체험활동에 활용해보려고 한다"고 매우 만족감을 보였다. 전남남도창의융합교육원장(원장 김성희)은 "전남메타스쿨 플랫폼이 장기화된 감염병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해야 할 때,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을 위한 온라인 수업 상시 지원 체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신안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역량 강화 연수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제2기 신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심의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 학부보 6명, 교육전문직 3명, 변호사 1명, 경찰 2명, 양성평등전문가 1명, 상담 전문가 2명 총 14명을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 14명 대상

위촉했다. 2022년 제2기 신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는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의 상견례부터 시작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재심 담당 변호사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폭력에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고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법률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조새미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와 이해, 심의위원회 교육조치 불복 시 진행되는 행정심판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심의위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번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은 "개정된 즉시

분리 제도 내용과 절차, 피해관련학생측은 필요시 심의 과정에서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교장 자체해결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전문적인 내용을 안내받아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한관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신안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징벌적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 피·가해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데 심의위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순천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연속 선정

2013년 이후 매년 농대생 특화 교육 진행

순천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시행한 '2022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농대 미전 농과정에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농정원은 농산업분야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입 확대를 위해 2022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과정'을 운영할 전국 10개교를 선정했다. 순천대는 지난 2013년 교육지원사업에 최초 선정된 이후 꾸준히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9년 3년 과정 선발 이후 2022년 사업까지 연속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순천대는 올해 1억 1,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향후 최대 3년간 농대생들에게 농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또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과정'으로 디지털농업의 전환에 발맞춰 재학생의 농산업

야 일자리 진출 촉진을 위해, 농산업분야 진출 마인드 교육, 진로 탐색 및 체험교육, 교내외 현장실습, 취업동아리, 학교자율편성프로그램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대응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디지털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관 견학과 직무체험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다. 남기창 사업단장(순천대 동물자원과학과)은 "이번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과정 교육을 통해 디지털농업 분야 현장 능력을 함양하여 농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전문적·기술적 직무 분야의 취·창업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공공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토론·글쓰기 확대 운영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고등학생까지 600여 명 대상

광양공공도서관은 "2022년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토론·글쓰기"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공공도서관 대표 역점사업인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고 토론 기술을 익혀 논리적 사고를 전개, 궁극적으로 경청과 소통하는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고등학생까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3월 15일 개강한 마동초를 시작으로 6월까지 16개교 30개 강좌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1교 1개 강좌 지원에서 더 나아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급 단위까지 모두 선정된 결과, 전년 대비 운영 학교 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 중 10개교는 특정 학년 전체가 참여한다. 김형구 관장은 "이번 독서·토론·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경청 능력, 발표력, 문해력을 기르는 동시에 다름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갖추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매년 점차 확대하여 광양 관내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프



로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